

새 배움길 열린 대전 학교밖 청소년

○ 김지현 기자 | : 승인 2020.03.12 16:57

검정고시보다 문턱 낮춘 기회 제공
꿈드림센터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
'기준 학습시간' 이수 시 학력 인정

대전시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만들었다. 의무교육을 중도에 멈춘 학교 밖 청소년과 연령 초과 등을 이유로 학교로의 복귀 기회를 놓친 청소년,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.

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'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' 사업을 운영한다.

해당 사업은 미취학·학업중단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력 취득을 돕는 것으로,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다. 구체적으로 초·중등 단계에 있는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지원 프로그램, 학교 밖 학습경험, 온라인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.

또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등 6~7개의 필수·선택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학력 인정이 가능한 검정고시와 달리 과목별 '기준 학습시간'을 모두 이수한다면 학력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.

지난 2017년부터 강원과 경기 등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전도 지난해부터 대전시·서구·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곳에서 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대전시 꿈드림 관계자는 "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정고시뿐이었다.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신체·정신적으로 불편한 아이들의 경우 시험을 버겁게 느꼈다"며 "또 다른 길이 열려 센터가 운영하는 상담, 취업, 자립, 건강검진 지원과 맞춤형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홍보에 몰두할 예정이다. 관내 3곳의 꿈드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특정 센터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전시 꿈드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서구·유성구 꿈드림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. 또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.

시교육청 관계자는 "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정고시를 볼 수 없어 학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·권장하고 활성화하려 한다"며 "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습지원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길 희망한다"고 말했다.

김지현 기자 kjh0110@ggilbo.com

저작권자 ©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지현 기자